

# 유치환의 인간주의 문학관

방 인 태\*

## 1. 둘 머리

문학 작품은 작가라는 한 개인에 의한 창조물이다. 이 말은 문학은 개인적인 행위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문학이 개인적 행위의 한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는 한, 그것은 개인의 의식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을 앞세울 때, 청마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작가 보다도 그의 문학은 인생 우선의 인간주의 문학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그의 문학관의 실상을 밝혀 그의 이러한 문학의 행위가 그 자신의 문학관의 필연적 소산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치환 자신이 피력한 문학관을 몇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실상과 의미를 검토하려고 한다. 과연, 자신이 언급한 문학관에 비춰볼 때, 유치환의 문학은 그에 어느 정도로 접근했는가는 그 다음에 요청되는 일일 것이다.

## 2. 생리 시론

유치환을 가리켜 문학관이 없는 시인, 시론이 없는 시인<sup>1)</sup>이라거나 그의 문학관을 <무시론의 시론><sup>2)</sup>, <반시론주의 시론><sup>3)</sup>으로 규정하기도

---

\*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 문덕수, 「유치환의 시연구」, *홍대논총*, 1977, 67쪽.

2) 위의 글, 같은 곳.

3) 위의 글, 69쪽.

한다. 유치환의 문학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거의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문학관에 대해 언급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다면, 유치환 나름의 문학관이 엄연히 있고, 유치환은 그 자신의 시론<sup>4)</sup>에 따라서 시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치환의 시론을 〈생리 시론〉이라 이름짓고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유치환이 언급한 자신의 문학에 대한 견해부터 보기로 하자.

이 詩는 나의 出血이오 癱汗이옵니다. 그렇기에 뉘가 내 앞에서 나의 詩를 云謂함을 들을적엔 衣服 속의 皮膚를 들추어들보고 말썽하듯 나는 不快함을 禁 하지 못하옵니다. (중략)

詩인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이 되리라는 이 쉬움과 얼마 안된 말이 내게는 갈 수록 감당하기 어려움을 깊이 깊이 뉘우쳐 깨다르옵니다. (중략)

오늘 불상한 生涯에 있는 오직 하나의 가까운 血肉을 위하여서만으로도 길스 가의 한 신기리가 되려는 그러한 굳고 깨끗한 마음성을 가지기를 나는 소망하오니 어느 때 어느 자리에나 제 몸을 두어도 오직 그의 가질 마 몸짓과 마음의 푸른 하늘만은 아끼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人類에 絶望하오리까.<sup>5)</sup> (하략) (밑줄 필자, 아래 같음)

또한 열의도 없는 분뇨를 하듯 어찌 시인이 시를 일부러 낳으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참아서 둔히 견딜만 하거든 아예 봇대를 들지 아니하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불행을 하나이라도 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만약 나를 시인으로 친다하면 그것은 분류학자의 독 단과 취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찌 사슴이 초식 동물이 되려고 애써 풀잎을 씹고 있겠습니까. 이슬에 젖은 초록의 아침 속에서 애틋디 애틋 태양과 더불어 처음으로 조상 사슴이 생겼을 적에 진실로 우연히 그렇잖으면 정말 마지못할 사정으로 풀잎을 먹은 것이 그만 그러한 출판 출성을 잊지 아니하지 못하게 된 소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는 항상 불가피한 존재의 죽명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찬을 내노라고 제 쓴 것을 뒤적거리는 것처럼 불쾌하고 부끄

4)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서울 : 일지사, 1983, 7쪽.

한계전, 「시학과 수사학」, 현대시 제 2집, 서울 : 문학세계사, 1985, 296쪽. 여기에서는 시론과 시학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에 따라 서 시론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유치환, 청마시초, 1939, 청색지사, 4~6쪽.

러운 노릇은 없슴데다. 여기에 모은 것은 첫시집 이후 해방 전까지 된 것들로 그 중에도 제2부시들은 내가 북만주로 도망하여 가서 살면서(진정 도망입니다) 떠날 새 없이 허무 절망한 그릇 광야에 위협을 당하며 배설한 것들입니다. (하략)<sup>6)</sup>

생리란 무엇인가. 생명체의 생존과 생활의 원리로서, 혈액 순환·호흡·소화·배설·생식 따위의 작용을 일컫는다.<sup>7)</sup> 위에 인용한 두편의 글에서 우리는 이 생리 현상과 관련된 용어들이 유치환의 시론을 진술하거나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곧, 혈액, 소화, 배설을 가리키는 <출혈, 빌한, 분뇨, 초식, 배설>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결국, 유치환은 자신이 시를 쓰는 행위가 생명체가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자연적 또는 숙명적으로 하게 되는 여러 행위와 현상과 같은 것임을 애써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초식 동물인 사슴은 자신의 생명체를 생존시키기 위하여 풀잎을 씹어 그것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듯이 유치환의 경우도 시란 유치환이란 한 생명체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생리적 현상의 하나로 시를 쓸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숙명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존재의 숙명은 참고 견딜 수 있으면 벗어나고픈 불행한 행위, 생명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숙명적인 필연의 행위로서 자신의 문학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벗어나고 싶은 불행한 숙명인 시인으로서의 길에서, 그 자신의 생리 행위의 결과인 시들을 끓어낸다는 것이 끝없이 <불쾌하고 부끄러운 노릇>으로 보는 것이다. 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자연 현상인 생리의 행위가 왜 부끄럽고 불쾌한 노릇일까? 그것은 오히려 당당한 행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닐까? 이런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치환의 대답을 우리는 그가 자신들의 시편을 <배설한 것들>로 비유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배설하게 되고, 이 배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의 섭취 행위와 대응하는 신체의 필수적 신진대사의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이 배설하는 행위의 모습이나, 배설한 것들을 결코 자랑스러워 하거나 언제나 공개해도 좋은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있는 행

6) 유치환,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서문.

7)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86, 1878쪽.

위이지만, 배설에 대하여 갖는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마련인 보편적인 대응 방식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배설한 것들>인 시 편을 끓어내는 것이 <부끄럽고 불쾌한 노릇>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막바로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왜 그토록 부끄럽고 또한 불쾌 하기까지 한 <배설한 것들>을 끓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유치환이 언급한 <존재의 숙명>이 그에 대한 답이 된다. 우리가 불쾌하 고 부끄러운 노릇이기도 한 배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생명 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꾀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간후, 우리는 이 배설 행위를 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배설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이 불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게 없다. 그것은 바로 생존을 부정하는 것 과 다름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숙명적으로 한 생명 체로서 배설을 하기 마련이고, 이 배설 행위가 바로 그 자신의 문학이 라는 생각을 유치환은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치환의 인간주의 문학 관의 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인간주의 문학관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생리 현상으로 문학 행위를 표현한 보기를 몇개 더 들어보기로 한다.

사실 그때에는 문학하기 위해서 이 따위 작품들을 쓴 것이 아니라 과잉한 전 태의 나머지 일종의 오나니—나 마찬가지의 행위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중략)

곰곰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선 인간의 생활들이 선이고 악이고 간에 생명의 혼신것 活出이 필요되고 또한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에 비하여 (하략)<sup>8)</sup>

그러나 이 多辯庭이 結局은 커다란 虛無의 鬱迫 앞에 선 卑小者の 自身의 非 力을 忘失하기 위한 燥渴한 偏執의 所致인 同時 將次의 커다란 沈默을 위한 排泄임을 스스로 믿는 마이다.<sup>9)</sup>

이로 볼 때, 결국 유치환은 문학 행위는 생명체의 생명 보존을 위한 생리적 활동의 현상에 터잡고 있는 숙명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8) 유치환, 생명의서, 행문사, 1955, 재판, 서문.

9) 유치환, 제9시집, 서울 : 한국출판사, 1957, 204쪽, 후기.

### 3. 윤리적 효용론

문학을 보는 관점은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과의 관계에 따르면, 넷으로 가를 수 있다.<sup>10)</sup> 곧, 문학을 그 다루는 대상과 관계지어 볼 때는 모방론, 문학을 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표현론, 문학을 창작한 작가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표현론, 작품이라는 구체적 대상 자체만을 볼 때의 객관론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관과 관련지어 유치환의 문학관을 검토하면 유치환의 문학관은 효용론이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효용론적 문학관은 문학을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는 한 방법으로 보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 문학관의 하나<sup>12)</sup>이다. 이 문학관은 우리나라의 고전 시학의 중심적인 문학관<sup>13)</sup>이었고, 한국 근대시론의 형성에도 얼마간의 영향을 끼친 것<sup>14)</sup>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뿌리가 깊고 광범위한 효용론은 유치환에게도 수용되어 그 나름의 문학관을 형성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각이 있는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현실 사회에 일어나는 보고 듣는 일에 대하여 쓸리는 관심이 내게도 대단히 많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不正不義한 일일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흥분하기까지 하기가 일수입니다

10) M.H. Abrams, *The Mirror & The Lamp*, London: Oxford Univ., 1971, 6~7쪽.

11) 문덕수, 앞의 글, 70쪽.

김성언, 효용론적 문학관의 전개와 계승, *국문학 연구* 49, 서울대대학원, 1981, 58-77쪽.

김은자, 「유치환의 ‘생명의 서’」, *한국 현대시 작품론*, 서울: 문장사, 1981, 218쪽.

동시영, 청마문학의 노장사상 수용 연구, 전국대학원, 1987, 17쪽.

12) 논어, 위정편. 시경, 모시대서. James J.Y. Liu, *Chinese Theories of Literature*, Chicago: Chicago Univ., 106쪽. M.H. Abrams, 앞책, 14~21쪽.

13)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서울: 흥성사, 1979.

김홍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14) 주승택, *한국 근대시 형성의 장르론적 측면*, 현대시 제 2집, 서울: 문학세계사, 1985.

다. (중략) 나는 나대로의 정의감이나 내지는 인생관을 그수든지 굽힐 수는 적어도 내가 글을 쓰는 한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문학이란 언제나 높은 윤리의 태반을 갖지 않고서야 낭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윤리를 갖지 않은 글, 윤리의 정신에서 생산되지 않은 문학은 무언보다 첫째, 그것을 읽어줄 독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읽어서 공명을 낼 볼 수 없으므로 읽을 필요나 흥미를 아무도 안 느낄 것이기 말입니다.<sup>15)</sup>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바로 유치환의 효용론적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용론의 중요한 기반을 윤리에 두고 있음도 함께 찾을 수 있다.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논하는 효용론의 견해는 그대로 유치환에게서 드러나고 있거니와, 유치환은 〈윤리의 정신〉에서 생산된 문학이라야 독자에게 〈공명〉과 〈흥미〉를 주게 되므로, 독자에게 쓸모가 있다 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효용론은 문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퍼락설과 교시설로 양분되어 논의<sup>16)</sup>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치환에게 〈읽을 필요〉와 〈흥미〉가 요구되는 독자와의 〈공명〉으로 그 효용론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치환의 문학관이 효용론을 그 하나의 줄기로 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효용론의 효용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그 효용은 어떤 소용이 되는가의 효용성의 문제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용용의 방향의 문제와 무슨 효용의 일을 하는가 하는 기능의 세면에서 그 양상<sup>17)</sup>들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씩 살피다만, 효용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유치환은 〈不正不義한 일일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흥분〉하는 일과 효용성이 관련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유치환이 언급한 〈윤리의 정신〉과 관련될 터인데, 그 윤리의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치환의 다른 글을 살펴는 일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경우 우리 인간 자신 속에 더 큰 어떤 모습이나 단착이 있다 하여 그 이유로서 자신의 다른 부정이나 不善을 간과한다든지 여용할 수는 없는 일

15)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서울 : 신흥출판사, 1959, 151~152等.

16)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29~37쪽.

17) 이상설,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출판부, 1983, 4판, 70쪽.

이다. 어떠한 미명의 명분 아래에서도 자신의 악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될 인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준열성이야말로 더구나 항상 인간의 앞을 나서기 마련인 문학에 있어서의 정신이요 지성이요 또한 진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sup>18)</sup>

이로 보면, 윤리의 정신은 <문학의 정신>의 다른 표현이며, 이 정신은 자신의 부정, 불선, 악을 간파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준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준열성으로 표현되는 윤리의 정신은 작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정신인 것인가의 의문이 떠오른다. 앞의 인용문에 보이는 사회의 부정 불의한 일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홍분과 관련되는 어면 것일 것이다. 그 다음의 글을 읽어 보기로 하자.

사실 나는 사회적인 부정 불의나 권력의 횡포를 보고 들을 때는 당장에 수류탄이라도 들고 뛰어 들고 싶은 분경에 앙양히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sup>19)</sup>

그러므로 오늘 조국의 이 동난이 의미하는 사건이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증유의 참화를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직접 이 민족만이 아프고 쓰라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릅쓰는 자리 파멸된 불행한 정신을 재기케 하는 노력에 내 자신 조금이라도 푸려쓰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전선에서 얻은 바 이 조그마한 사유의 씨가 앞으로 내 안에서 발효하는 결과에서의 일일 것이며 또한 이 일이야말로 내가 목격한 마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인류와 조국의 이름 아래 바친 바 그 영광의 수난을 증언하는 한계 시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sup>20)</sup>

원하건대 이것으로 지낸 날의 어둡고 슬픈 기억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조국의 크고 바른 앞길만을 위하여 나의 노래와 아픔이 선혈처럼 의로워지고자.<sup>21)</sup>

유치환의 윤리 정신은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정신이고, 정신을 재기케 하는 노력에 보탬이 되는 것이며, 영광의 수

18) 유치환, 「문학과 진리」, 마침내 사랑은 이렇게 오더니라, 서울 : 문학세계사, 1986, 191쪽.

19)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앞책, 152쪽.

20) 유치환, 보병과 더부러, 문예사, 1951, 서문.

21) 유치환, 생명의 서, 서울 : 행문사, 1947, 서문.

난을 증언하는 정신이고, 조국의 크고 바른 앞길을 위한 의로움의 정신이다. 묶어 말하자면, 개인적인 정직과 염결성이 혼탁한 현실에 대응<sup>22)</sup>하는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윤리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는 효용성은 독자에게 <공명>의 방식으로 <읽을 필요>와 <흥미>의 기능을 갖는 효용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청마의 시에 나타날 경우에 이를 예언자적 가열성<sup>23)</sup>, 지적 오만이나 고압적 가락<sup>24)</sup>, 귀족주의적 윤리<sup>25)</sup>로서 지적하기도 한다. 유치환의 이와 같은 효용론적 문학관에서 발원하는 윤리 의식은 그의 인생 태도나 시작에 임하는 자세에 직결<sup>26)</sup>되고 있다.

#### 4. 인간 제일주의 또는 문학 제이주의

유치환은 도처에서 시는 제 2 의적인 것이며 인간이 우선한다는 말을 토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반론<sup>27)</sup>을 받기도 했으나, 그의 재반론<sup>28)</sup>에서도 역시 그 주장을 끊히지 않고 있다. 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유치환이 이토록 집요하게 문학보다 인간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문학관의 일단은 인간 제일주의 문학관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것, 인생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 존엄성과 가치를 두는 인간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유치환의 말에 귀를 기우려 보기로 한다.

詩人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이 되리라는 이 쉬웁고 얼마 안된 말이 내게는 잘

22) 김종길, 「청마 유치환론」, 창작파비평, 1974, 여름호, 319쪽.

23) 김윤식, 「허무의지와 수사학」, 한국 근대 작가론고, 서울 : 일지사, 1978, 289쪽.

24) 신경립, 정희성, 한국 현대시의 이해, 서울 : 진문출판사, 1982, 216쪽.

25) 김준오, 「청마 시의 반인간주의」, 가면의 해석학, 서울 : 이우출판사, 1987, 224쪽.

26) 김은전, 「청마 유치환의 시사적 위치」, 현대시 제 2집, 서울 : 문학세계사, 1985, 286쪽. 그밖에, 유치환의 윤리적 효용론의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글은, 김윤식, 「청마론의 험방」, 심상, 1975, 1. 김종길, 앞의 글, 문덕수, 앞의 글, 허만하, 「청마의 아포리즘」, 심상, 1978, 8. 등이 있다.

27) 이형기, 「상식적 문학론(3)」, 현대문학, 1962, 9.

28) 유치환, 「문학과 인간」, 현대문학, 1962, 12.

수록 감당하기 어려움을 깊이 깊이 뉘우쳐 깨다르옵니다.

오늘 불상한生涯에 있는 오직 하나의 가까운 血肉을 위하여서만으로도 길  
스가의 한 신기리가 되려는 그러한 굳고 깨끗한 마음성을 가지기를 나는 소망  
하오니 (하락)<sup>29)</sup>

貴한 종이를 浪費해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詩를 버리지 못함은 오늘 韓國의  
現實에 對한 絶望과 所謂 文壇이란 것에 對한 憎惡로 보면 내自身汚辱의 느  
낌을 禁하지 못하나, 짜지고 보면 실상 내가 詩 그것에보다도 人生을 热愛하는  
所以에서가 아닌가 싶다.<sup>30)</sup>

R형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옳은 말들이라 首肯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게는  
如前히 詩보다 人間이나 人生이 더 소중한 것으로 믿어지는 데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sup>31)</sup>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유치환의 인간 제일주의의 문학관의 언급과  
만난다. 오직 한 사람의 가까운 혈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마다 않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간주의의 정신, 시인이 되기 전에 우선 한 사  
람이 되겠다는 각오와 노력, 인생을 열애하거나 인간이나 인생을 시보  
다 소중히 하는 신앙과도 같은 신념, 이것들은 바로 유치환이 문학보다  
인간을 우선시키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의 「문학과  
인간」이란 글에서 이형기의 반론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인간  
제일주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일 앞에서 우  
리가 유치환의 문학관을 생리 시론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다. 곧, 생  
리란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기 이전의 본능이고 행위인 것이다.  
생리 앞에서 이성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과 결부되는 것과는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리  
므로, 이해는 가지만 믿을 수 없다는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은 유치환  
의 고백은 생리적 본능의 직관 앞에서는 당연 이상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제일주의, 달리 말하여 문학 제이주의는 어떠  
한 모습으로 문학에 나타나는가. 다음을 보자.

그러나 내가 진정한 詩人이 못되고 따라서 나의 쓴 詩들이 人間과 人生을 보

29) 유치환, 청마시초, 서울 : 청색지사, 1939, 5~6쪽.

30) 유치환, 청마시집, 문성당, 1957, 244쪽.

31) 유치환, 「문학과 인간」, 앞의 글, 128쪽.

다 所重히 다루었으므로 詩가 못되더라도 내게는 하나 애석하거나 憤스러울 理는 없다.<sup>32)</sup>

문학과 시의 입장에서 보면 분스러울 생각을 유치환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절대주의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문학의 미학적 형태나 구조를 얘기할 자신도 없거니와,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문학 제이주의의 입장에선 유치환의 다음과 같은 거침없는 말을 듣고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신념을 넘어선 절대적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진실로 내가 憤히 여길 일은 萬에 一이라도 詩 쓰는 내 人生을 延命하기에 卑屈하게도 權力 앞에 아유구용하거나 詩를 지키기 위해 人間을 버리는 길을 取하는 경우에 限할 것이며 나아가서 나도 예컨대 無道하게 人間이 짓밟힐 때 그 짓밟히는 者가 異民族이요, 짓밟는 者가 실령 내 祖國이라 할지라도 人間을 옹호하기에 동댕이친 펜대 대신 鏡을 들고 저 祖國에까지 敢然히 抗拒하고 일어서는 勇氣와 知性을 가진 위인이기를 바라고 싶을 뿐이다.<sup>33)</sup>

여기까지 이르면, 유치환의 인간 제일주의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라도 총들고 항거하려는 절대 신념의 준열한 목소리를 듣는다. 유치환에게는 자신의 문학관에서 볼 때, 인간을 도외시한 순수시(pure poetry)를 추구하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봉 폴 발해리<sup>34)</sup>에게 항의와 도전의 뜻을 담은 시<sup>35)</sup>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치환은 왜 이처럼 인간을 앞세우는 것일까의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人間이 없는 곳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고 人間이 버림 받는 곳에 詩고 藝術이고 아예 있을 理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切實하고 直接的인 것이 「人間」이나 「人生」이란 어휘에 씌워졌다 하여 어찌 한갓 觀念이나 抽象 밖에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sup>36)</sup>

32) 위의 글, 같은 곳.

33) 위의 글, 같은 곳.

34) 마르셀 헤돈, 김화영 역, 프랑스 현대시사,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3, 194~216쪽.

35) 유치환, 「내가 이것을 만들었는가—포을·봐레리氏에게—」, 청마사집, 앞 책, 43~45쪽.

36) 유치환, 「문학과 인간」, 앞의 글, 128쪽.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시나 예술보다 최우선으로 신뢰하고 있는 유치환에겐 풀 발레리의 경우와 대척되는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동의 윤리를 그 주제로 추구하는 생僻취베리<sup>37)</sup>에게 찬사의 시<sup>38)</sup>를 쓴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치로 풀이 할 수 없는 신념의 문학관, 유치환의 인간 제일주의 문학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다.

참으로 詩란 人間 乃至 人生 속에 있는 것이요 詩 속에 詩가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詩는 詩人이 發明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 人生 속에서 發見되는 것임을 나는 믿는다.<sup>39)</sup>

### 5. 반시인론의 의미

나는 詩人이 아닙니다. 만약 나를 詩人으로 친다 하면 그것은 분류학자의 독단과 취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찌 사슴이 초식 동물이 되려고 애써 풀잎을 씹고 있겠습니까.<sup>40)</sup>

시인이 시집을 발간하고, 그 첫머리의 서문에 이처럼 시인이 아니라 고 언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몇몇 평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운운할 자신이 없다<sup>41)</sup>고 회피하거나, 그 원인을 시대적 상황과 일본 시인 다까무라고오따로(高村光太郎)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교화적·비판적·예언적 기능을 중시하게 되어 사회 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갔다<sup>42)</sup>고 분석해 보기도 하며, 자기 방기적 단언,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언사, 부정과 회피로써 자신의 시와 시인을 아주 포기해버리는 태도, 청마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함정, 고의적 부정으로 그의 시의 소박한 진술의 결함을 은폐시키는 구실을 해왔다<sup>43)</sup>고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37) 세계 문학 대사전,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83, 521쪽.

38) 유치환, 「熱愛, 생僻취베리에게」, 미루나무와 남풍, 서울 : 평화당, 1965, 30쪽.

39) 유치환, 「문학과 인간」, 앞의 글, 128~129쪽.

40) 유치환, 생명의서, 앞책, 서문.

41) 김윤식, 「청마론의 행방」, 심상, 1975, 1, 19쪽.

42) 문덕수, 앞의 글, 67~70쪽.

43) 오탁번, 「청마 유치환론」, 어문논집 제21집, 고려대 국문학연구회, 1980, 87~94쪽.

이점에 대해서 유치환 자신의 반시인론의 언명에 대한 해명을 우선 들어보기로 한다.

문학이란 어디까지나 높은 양식과 심오한 관조에서 재래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는 언제나 생명의 목마른 절규같은 데서 자연 발생한 심히 조잡한 문학 이전의 어떤 소재 같은 것에 불과한 때문이다.<sup>44)</sup>

詩라는 藝術作品이나 그것을 製作하는 詩人이란 藝術家를 두고 나의 경우와를 비교하여 곰곰히 생각해 볼때 첫째 나는 詩人이 될 수 없고 또한 도저히 詩人이 아님을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45)</sup>

왜냐하면 詩란 더구나 現代의 그것에 이르러서는 어디까지나 明鏡止水的인 이마주의 순수한 鐘錶 위에 이루어져야만 할텐데 그것이 全無하고 詩 以前의 吐露일 뿐인 때문이다.<sup>46)</sup>

유치환은 자신이 시인이 아니고, 그러므로 자신이 쓴 것이 시가 아니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그것은 〈생명의 목마른 절규〉, 〈자연 발생〉, 〈문학 이전의 소재〉, 〈시 이전의 토로〉가 자신의 시이므로 현대시의 의미에서 볼때, 〈이마주의 순수한 연쇄〉가 아니므로 시가 아니고, 따라서 자신은 〈시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자신의 시들은 소재의 차원에 머무는 상태이지, 다른 바 시적 형상화가 안 되었다는 유치환 나름의 분석과 진단이고, 그 다음은 현대시는 이미지의 연쇄로 쓰여지는 것이라 유치환식의 현대시의 인식의 태도이다. 이를 묶어보면, 자신의 시는 이미지의 연쇄가 아니므로 시가 아니고, 시 아닌 것을 쓰는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유치환이 다다르고 있다. 이점은 유치환의 상당한 오해일 따름이다. 그의 대표작, 「깃발」은 이미지의 면에서 볼때 감동적인 작품<sup>47)</sup>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의 시들을 이미지의 분석으로 살펴 본 글들<sup>48)</sup>도 여러 편이 있을 정도로, 유치환과 그의 시가 유

44) 유치환, 《쫓겨난 아담》, 서울: 범우사, 1976, 80~81쪽. 오타번, 위의 글에 서 재인용.

45) 유치환, 「나의 시에 대하여」, 세대, 1964, 9. 오타번, 앞의 글에서 재인용.

46) 위의 글.

47) 이상섭, 「절대적 심상」, 심상, 1973, 12, 14~15쪽.

48) 그 중요한 것들만 들어본다면, 이해옹, 청마 유치환의 작품고, 동아대대학

치환 자신의 고백처럼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유치환의 타고난 겸허<sup>49)</sup>에 그 상당한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유치환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문학은 윤리의 정신을 그 태반으로 한다 : 필자)를 들어 놓을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直情의 端的인 토로 의욕과 한 작품으로서의 形象化 방향과는 항상 괴리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나의 경험상으로 말하고 싶음에서인 것입니다.<sup>50)</sup>

결국, 유치환은 자신의 직정의 단적인 토로 의욕과 문학적 형상화<sup>51)</sup>가 항상 괴리되기 마련인 점을 경험으로 깨달았고, 현대시가 형상화의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그 자신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의 시작에서는 그것을 조화하기 어려울 때, 둘 중의 하나(토로 의욕과 형상화 방향)를 선택해야 할 때, 유치환은 경험에 따라 직정적인 토로를 택해 왔고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분석과 판단에 따른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환의 솔직함은 어찌 보면 대가의 품격<sup>52)</sup>에 걸 맞지 않는 태도로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시를 보면 이러한 자기 나름의 인식과 평가는 좀더 철저한 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詩人에게

영원을 나는 밀지 않는다  
그것은 정수리 위에 도사려  
내가 목숨을 목숨함에는  
술개에게 모자보다 無緣한 것

원, 1981. 권영민, 「유치환과 생명의지」, 한국 현대시사 연구, 서울 : 일지사, 1983. 최동호, 「청마시의 '깃발'이 향하는 곳」, 현대시의 정신사, 서울 : 열음사, 1985. 이인숙, 유치환 시의 구조적 특성 연구, 성심여대대학원, 1986 등이 있다.

49) 김종길, 「청마 유치환론」, 창작과비평, 1974, 여름호 311쪽.

50)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앞책, 152쪽.

51) 김종길, 「비정의 철학—청마시의 세계」, 시론, 서울 : 탐구당, 1965, 63쪽에서, 김종길은 「시적인 기교를 따로 가지지 않고도 관점과 적판과 논리만으로써 詩를 쓰고 文脈에만 의존하는 점에 있어서 그는 現代詩人으로서는 차라리 회귀한 타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김은전, 앞의 글, 284쪽, 「그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우선시킨 시인이라 할 것이다.」

52) 위의 글, 57쪽.

이 날 짐짓  
 나를 불들어 놓지 않는 것은  
 살아 있으므로 살아야 되는 무가내한 設定에  
 빛바람에 보듬긴 나무  
 햇빛에 잎새 같은 열망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그 짧은 인생의 사무치는 뜨거움에  
 차라리 나는 街頭 經世家  
 마침내 蝶蝶의 목숨대로  
 보라빛 한 모금 茶毬 되어  
 영원의 회멸전 상관을 기어 사라질 날이  
 얼마나 시원한 消盡이랴  
 그러기에 시인이여  
오늘 아픈 인생과는 아예 무관한 너는  
 예술과 더불어 곱곰히 영원하라<sup>53)</sup> (밀줄은 필자)

앞에서 유치환이 생떼쥐베리에게는 찬사의 시를, 풀 발레리에게는 항의의 시를 썼다고 말했거니와, 유치환이 인식하고 있는 시인의 참모습은 위의 인용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오늘 아픈 인생과는 무관한> 자들이 유치환이 이해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들은 영원을 믿고, 짧은 인생보다는 영원한 예술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영원을 믿지 않고, 긴 예술보다 짧은 인생의 사무치는 뜨거움을 외치는 거리의 경세가가 되고자 하는 유치환은 그와 같은 시인은 될 수 없다는 유치환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작품들은 시고 무어고 본질이 심히 어정쩡해서 시라고 말했다가 산문이라고 불렀다가 할 수 있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54)</sup>는 자기 고백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른 바 현대시의 조류와 상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시 아닌 글을 쓰는 입장에서, 현대시의 조류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치환식의 겸허한 자기 해명인 것이다. 그러면,

53)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청마 유치환 전집 2,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서울 : 정음사, 1984, 124쪽.

54) 유치환, 동방의 느티, 서울 : 신구문화사, 1959, 후기.

유치환은 자신의 말대로 〈문학 이전의 소재〉나 〈시 이전의 토로〉를 단순히 배설하듯이 어떤 발효와 거름 없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sup>55)</sup> 시작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 데 있어 나는 꽤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첫째 한가지 차상을 엎더라도 펜을 들기까지에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득히는 수가 혼합니다. 그렇게 차상을 지니고 있는 동안 더러는 어느 새 잊어버려 없어지기도 합니다. 잊어버려 없어져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음은 그러한 것은 설령 안 잊고 쓴다하여도 신통치 못한 것이 되고 말기 마련인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마음 속에 박혀 앓여서 못 잊는 것일수록 또한 오래도록 배고 있는 것일수록 비교적 좋은 작품으로 생겨나기가 십중 팔구인 것입니다. 물론 수삼일 걸려 제작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수삼일동안만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모서리부터 차수 하여야 될까에 앙망하여 항시도 마음 놓을 수가 노상 없는 편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펜을 대어 쓰는는데도 몇십번을 고쳐 쓰는지? 간신히 되었다 싶어도 그것을 넣어 두었다 원전히 기억에서 가셔진 때 다시 내어 보면 거기에는 많은 미흡하고 불만한 점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단계까지를 거치고서야 겨우 안심하고 발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sup>56)</sup>

아닌게 아니라 나도 생시 뒷간에서만이 아니라 잘 때 꿈속에서까지 싯귀에 시달릴 정도로 詩作에 집착하고 열중한다.<sup>57)</sup>

위에 인용한 유치환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유치환 그는 시인으로서의 시를 쓸 때에 시간적인 연소와 발효를 거치고 세밀한 정돈의 단계를 거쳐야, 겨우 발표할 수 있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의 시인임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유치환이 자신이 쓴 글의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시에 대해서 부끄럽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작품이며, 그런 것들을 쓰는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평하고 있는 그 속뜻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다. 그것은 자신 만의 독단적인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들의 견해도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한다. 유치환은 평소의 사람들과의

55) 오타번, 앞의 글, 88쪽.

56)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앞책 153쪽.

57) 유치환, 「문학과 인간」, 앞의 글, 128쪽.

교제에서 남의 얘기만 듣고, 자신의 얘기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다는 그의 과묵한 태도의 사람임을 그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유치환의 이와 같은 문학적 태도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 6. 마 무 리

이상에서 우리는 유치환의 문학관을 살펴 보았다. 첫째, 유치환은 자신의 시와 시를 쓰는 관점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한 자연적, 숙명적인 행위와 같다고 보는 생리 시론의 입장에 있다. 둘째, 유치환은 문학은 독자에게 읽을 필요와 흥미를 주고 공명을 받기 위해서는 윤리의 정신에 태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윤리적 효용론의 관점을 보인다. 셋째, 인간을 위한 문학, 인생을 앞세우는 인간 제일주의의 문학관을 유치환은 표명하고 있다. 넷째, 유치환의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라는 반시인론은, 자신의 시는 현대시의 조류로 파악하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시들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이것을 현대시의 입장에서 보지말라는 뜻의 완곡하고 겸허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점은 결국, 자신의 시의 독자적인 개성의 가치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유치환식이 자기 고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유치환의 인간주의 문학관이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 일은 결국 다음의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